

- **주요 뉴스:** ECB 의사록,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
 - IMF, 각국 정부에 급격한 부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촉구
 -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일시적인 부채한도 확대에 합의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기간과 압력은 당초 예상을 상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부채한도 확대 합의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8%],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의회의 임시 부채한도 확대 합의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 지수는 원자재와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1.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포지셔닝 조정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독일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92.2원, +1.0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0/7일	10/6일	전일대비			10/7일	10/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99.8	4,363.6	0.83%	국채 금리 10y	미국	1.57%	1.52%	5bp
	유럽	458.57	451.33	1.60%		독일	-0.19%	-0.18%	-1bp
	중국	휴장	휴장	-		한국	20bp	20bp	0bp
	일본	27,678	27,529	0.54%	CDS 5y	중국	49bp	52bp	-3bp
	한국	2,959.5	2,908.3	1.76%		EMBI+	-	382	-
환율	달러지수	94.21	94.27	-0.06%	위험 지표	VIX	19.54	21.00	-6.95%
	유로화	1.1552	1.1556	-0.03%		WTI유	78.30	77.43	1.12%
	엔화	111.63	111.41	-0.20%	원자재	구리	425.2	414.8	2.52%
	위안화	휴장	휴장	-		금	1,755.8	1,762.7	-0.39%
	원화	1,190.4	1,192.3	0.16%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의사록,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

-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은 물가와 관련하여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 또한 이를 반영하여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이전에 계획했던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ING의 Carsten Brzeski는 이번 의사록 내용이 ECB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평가. ECB의 슈나벨 이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
- 다만 ECB의 레인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위험 수준에 진입한 것은 아니며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프랑스 중앙은행의 빌루아 드 갈로 총재 역시 역대 인플레이션은 1년 이내에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각국 정부에 급격한 부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촉구

- 각국은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국가별로 고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기와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첨언

■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일시적인 부채한도 확대에 합의

- 척 슈머 대표는 부채한도를 12/3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의 부채한도(28조8000억달러)를 4800억달러 증액할 예정.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출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최근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코로나 19와 연관

- 메스터 총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공급 차질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 또한 이를 고려할 때 해당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부연
- 한편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는 통화당국이 주요 은행들에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

■ 미국 에너지부,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이 없음을 시사

- 성명서에 따르면, 여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동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할 방침.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만 아직 행동에 옮길 예정은 없다고 발표. 시장에서는 원유의 수출중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기간과 압력은 당초 예상을 상회

- 휴 필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점차 증가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 여파가 종료되고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또한 금리는 향후 수 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

■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서명

- 파스칼 도나휴 재무장관은 해당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그 동안 15%의 법인세율을 반대하던 아일랜드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적 합의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향후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

- 구로다 총재는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 전망도 소비자물가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경제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감염의 대내외 영향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

- 해당 지수는 130.0이며 전년동월비 대비 32.8% 상승. 특히 곡물과 식물성 기름이 각각 전월비 2.0%, 1.7% 오르며 최근 지수의 상승을 주도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만건): 32.6, 전주(36.4), 예상치(34.8)
- 독일 8월 산업생산(전월비): -4.0%, 7월(1.3%), 예상치(-0.4%)

■ 주요 경제 이벤트(10/8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ECB 파네타 위원 강연, 미국 9월 고용보고서
- 미국 8월 도매재고, 독일 8월 무역수지, 중국 9월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신흥국, 정책결정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need to get ahead of inflation)
 -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에 뒤늦게 대응 시 통제 불능 가능성과, 과도한 조기 대응 시 경제회복 지연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에 직면. 하지만 신흥국은 인플레이션이 선진국 대비 빠르게 진행되어 물가상승의 일시적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부족
 - 이는 상대적으로 신흥국 물가상승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량가격이 15개월간 40% 상승(UN식량농업기구 추산)한 것이 주요 원인. 아울러 2013년 미국 테이퍼링 시기에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경험한 신흥국들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 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에 기인한 경상적자 가속화, 재정과 통화정책 구사 여력 부족, 세계화 후퇴 등은 신흥국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자극하는 요인
- **미국의 부채한도 문제. 일시 해결책 제시 속에 불확실성은 상존 - WSJ**
(Debt Ceiling Gives Investors Master Class in Complacency)
 - 공화당의 부채상한 유예 조치로 심각한 위협은 12월로 연기되었지만, 해당 문제에 과도하게 안주할 경우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상당.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정부부채의 낙관적 태도가 위험을 촉발
 - 시장의 안일한 태도는 최근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닷컴 버블붕괴 사례에서도 발생.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도 다수 시장참여자가 위기를 탈피할 수 있었지만, 부채상한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비에 따른 불안도 주시할 필요
- **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 다양한 문제로 회복의 장기화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post-pandemic recovery may prove more complicated than it looks)
- **미국 정부의 중국 수입제품 관세, 부정적 영향에도 對中 강경태도로 유지 - 블룸버그**
(Tariffs on China Are Destructive and They Are Here to Stay)
- **IMF 연례회의, 각국의 당국자들은 새로운 정책환경을 논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Keeping up with the new economic orthodox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